

한국생약보

믿고 찾을 수 있는 곳!

한국생약협회 직영
국산한약재 상설매장

고품질의 국산한약재만을 엄선, 소비자
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TEL:(02)967-4984

발행인 겸 편집인 황인구
인쇄인 장옥환

발행소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서울시 동대문구 계기2동 1140-55
TEL:967-8133 FAX:965-0643

2001년 6월 1일

THE HANKOOK-SAENGYARK BO

(1975년 6월 20일 창간) 제245호

하늘도 무심... 애타는 농심

사상 최악의 가뭄 약용작물 30%이상 타죽어 올 가을 국산한약재 수급에 심각한 타격 우려

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가뭄이 계속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상이 걸렸다. 극심한 봄가뭄이 2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전국의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밭작물은 타들어 가 농민들의 한숨이 깊다.

올 봄 파종한 약용작물의 경우 발아율도 떨어질 뿐 아니라 겨우 발아돼 나온 싹도 절반 이상이 흉하게 말라 비를 어져 농민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갈수록 재배면적과 생산량 감소로 시세폭등 및 수급에 차질을 빚어온 국산한약재가 올 봄 가뭄피해까지 겹쳐, 올 가을 국산 한약재 수급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경북 영양군의 박철규씨(49세)는 "예년같으면 일천공 이상부가 30cm정도는 성장해 있을 시기임에도 날이 가물어 30%는 타들어가고 남아있는 것도 고작 10cm정도에 불과한 형편"이라며 "다른 작물에 비해 유독 가뭄에 약한 일천공이 이대로 가다가는 거의 타죽고 말 것"이라고 한숨을 토했다.

경기도 안성군에서 황기, 당귀 등 약초재배를 하는 이 웅황씨(61세)도 요즘 거의 매일을 지하수를 파고 인근 저수지에서 물을 퍼내며 '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올 봄 파종한 홍화는 지금 거의 말라죽은 상태고 황기, 당

귀를 비롯 천궁, 하수오, 산약 등도 절반 이상이 타들어가고 있기 때문. 이씨는 "이처럼 가뭄피해로 올 가을 약초 생산량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속에 산지에서는 미리부터 국산 약초 물량을 확보해 놓으려는 장시군들의 발뚱거리가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포천군에서 황기농사를 짓는 이인기씨(62세)는 "다른 밭작물과 달리 뿌리작물이 대부분인 약초의 경우 이번 가뭄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고 말하고 "지금까지 20여년 약초농사를 지어왔지만 잡초조차 시들어 죽어버릴 정도의 가뭄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달 하순 남부지방에 한때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말 기준 전국 1만7,956개 저수지의 저수율은 총저수 가능량의 66%에 그치고 있다. 이는 최근 20년간 이맘때의 평균 저수율 73%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47%로 가장 낮은 것을 비롯해 경기 54%, 충남 54%, 충북 57%, 전북 60% 등 5개 지역이 전국 평균을 밑돌아 가뭄이 특

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저수율이 낮은 것은 올 4월과 5월 강수량이 33mm와 37mm로 평년의 104mm와 98mm에 비해 크게 모자라기 때문이라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기상청은 1일 "건조한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달 중순까지 큰 비는 오지 않을 전망이다"이라고 예고했다. 문제는 기상청 예보대로 이달 중순까지도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약용작물 피해는 더욱 심각하게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문정희)



◆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는 지난달 7일부터 8일 1박2일 일정으로 경남 산청군 소재 황매산으로 자생약초 서식지 답사를 다녀왔다. 우리 약초에 관심있는 일반 시민 1백여명과 경희대 한의대 안덕균 교수가 함께 떠난 이번 약초기행은 서식지 답사 외에도 문화유적탐방과 약초축제도 참여하는 등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지면안내

- 집중조명 / 중국의 WTO 가입이
국내 생약농업에 미치는 영향 3면
- 중국 약재시장 동향 5면
- 제97차 이사회 이모저모 7면

곳곳서 한방약초 축제 다양

생약산업 활성화 기대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로 한약재 수요도 늘고 있고, 소비패턴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 국산 한약재의 우수성 홍보와 시장활성화를 위한 한방 약초 축제가 지역별 특성을 살려 다채롭게 개최되고 있다. 행사를 통해 한약재의 다양한 이용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어 국산약재 수요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경남 산청군 일원에서는 제1회 지리산 한방약초 축제가 열렸다. 행사기간동안 약초로 만든 동충하초주·더덕주·삼지구엽초주·한방각테일·한방삼계탕·복분자·자라탕 등 한방술 음식 등 2백여 가지가 선보였다. 산청 공설운동장 앞 5백여평에는 약초동산이 조성돼 다양한 약초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으며, 1백여종의 지리



◆ 한국생약협회는 6월1일 서울경동약령시의날 기념 축제 기간동안 우수국산 한약재와 약초분재 등을 전시, 호응을 얻었다.

산 약초를 담은 화분도 전시됐다.

대구역약령시축제는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중구 남성로 약전골목 일대에서 성대히 개최됐다. 행사 첫날인 15일 길놀이를 시작으로 △약초꽃동산 △야생화분재전 △약초꽃사진전 △천연염료전 △우리약술모임전 등 전

사회가 약령시전시관에서 개최됐으며, 축제기간동안 △약차무료시음회 △한방떡맛 자랑 △한방요리시식 등 전통한방체험 행사들이 다채롭게 열렸다. 그밖에 △약썰기 경연 △한약재경매 △약초이를 알아맞추기 등 시민참가 행사도 마련됐다.

특히 한약재인 '소목'과 '울금'을 염색재료로 사용, 다양한 색상을 구현한 <천연염색전>은 염색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6월1일부터 2일 서울 경동약령시장에서는 제7회 '경동약령시의 날(6월1일)' 기념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기간동안 △우수한약재 전시·설명회 △한약차 시음회 △약재썰기 대회 △가훈 써주기 △한약초 꽃사진 전시회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지고 저소득주민 등을 위

한 한방 무료진료 행사도 마련됐다. 둘째날인 2일에는 경동약령시장 주변도로 5km를 달리는 단축마라톤 대회도 열린다.

또, 오는 8월30일부터 9월3일까지 5일간 삼성 코엑스 전시관에서는 '제3회 한의학 국제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의학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경희대와 중앙일보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기업이 대거 참여하며 국내외 3백여 한의학 관련기관 및 기업의 제품과 의료서비스 내용이 전시될 예정이다.

또 전문인을 위한 세미나, 일반 관람객을 위한 건강강좌 등이 마련돼 다양한 한방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